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보도자료

<http://www.gist.ac.kr>

보도시기	배포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	
배포일	2020.05.12.(화)	
보도자료 담당	홍보팀 김효정 팀장	062-715-2061
	홍보팀 이나영 선임행정원	062-715-2062
자료 문의	지스트 홍보팀	062-715-2061~3

지스트대학 학부생

2020 페임랩 코리아 본선(Top 10) 진출

- 지스트대학 전기전자컴퓨터전공 김병진 학생,
 ‘사람이 로봇을 단순한 기계 이상의 존재로 인지한다’ 는 주제로 발표 진행,
 평소 기술과 마음의 관계에 관심 많아...

□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대학의 김병진 학생(전기전자컴퓨터전공 4학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주한영국문화원이 공동주관하는 세계 최대 과학커뮤니케이터 발굴 프로젝트인 ‘2020 페임랩 코리아*’ 에 참가해 본선 Top 10에 진출하였다.

*페임랩 코리아는 과학·수학·공학 등을 주제로 자신의 생각, 지식, 경험을 활용해 3분간 발표하며 대중과 소통하는 글로벌 경진대회다. 20세 이상의 관련 분야 종사자나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은 발표자료(파워포인트) 없이 오직 말과 몸동작, 소품만을 활용해 과학이론을 흥미롭게 대중에게 전달해야 한다.

◦ 김병진 학생은 평소에 과학기술이 사람의 마음과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아 ‘사람이 로봇을 단순한 기계 이상의 존재로 인지한다’ 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과학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어 페임랩 대회에 지원하게 되었다” 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 TOP 10 진출자들은 지난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간 열린 마스터클래스(본선 진출자 교육)를 통해 창의적이고 인상적으로 과학을 어필하는 방법 등 다양한 실전 기술을 익혔다. 올해는 영국의 과학 커뮤니케이터인 휴 제임스(Huw James)가 교육에 참여했다.

- 10명의 본선 진출자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창의재단이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위촉하여 대중과 과학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얻게 되며, 국제 페임랩 네트워크의 일원이 된다. 과학커뮤니케이터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방문 과학강연인 다들배움 ▲길거리나 무대에서 과학 실험으로 공연하는 사이언스 버스킹 ▲성인 대상 과학공연 등 조교 수준급 전문가 대우를 받으며 활동하게 된다.
- 김병진 학생은 “좋은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기술을 이용하는 것은 인간이기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기술을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고, 앞으로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약하는 커뮤니케이터로 성장하고 싶다” 고 말했다.
- 현재 김병진 학생은 기초교육학부 소속 최원일 교수의 심리학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으며, 최근 ‘쇼미더사이언스 시즌2’에 ‘잠의 과학’을 주제로 공모하여 인포그래픽 부문 1위 콘텐츠로 선정됨에 따라 2020년 사이언스올에 콘텐츠를 연재할 수 있는 작가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 한편 페임랩(Fame Lab)은 2005년 영국 첼튼엄 페스티벌에서 페임랩 발표대회가 처음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에는 2014년에 도입되어 지난해까지 총 62명의 과학커뮤니케이터를 발굴하였다.
- 최근 지스트대학 학부생들의 과학커뮤니케이터 활동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2018년에 지스트대학의 오상현 학생이, 2019년에는 김연호 학생과 유승영 학생이 페임랩 Top10에 선정되어 과학을 주제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과학지식을 대중에게 흥미롭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끝>

[붙임] : 본선(Top 10)에 진출자 인터뷰 및 사진

◦ 지스트 전기전자컴퓨터전공 김병진 학생

▷ 어떻게 페임랩 코리아에 참가하게 됐나요?

- 사실 꽤 오래전부터 페임랩이라는 대회에 관심이 많았어요. 과학이 단순한 학문이기보다 훨씬 대중적인 문화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꼭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제가 너무 바빠서 참가를 보류해두었다가, 1년의 기다림 끝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 어떤 주제로 발표하셨나요?

- 사람은 로봇과 상호작용하면서, 단순히 로봇을 기계로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생명체와 동격으로 인지하지도 않지만, 사람들은 종종 로봇에 공감하기도 하고, 연민을 느끼기도 하죠. 저는 사람이 로봇을 단순한 기계 이상의 존재로 인지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 발표할 때 힘든 점이 있었나요?

- 직접 발표를 해보면, 3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는 게 느껴져요.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본에 다 포함하면, 3분이라는 시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더라고요. 시간 조절이 가장 힘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긴장하지 않고 발표하는 비법이 있나요?

- 연극 동아리 지대로와 홍보대사 지온나래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그렇게 사람들 앞에 많이 서다 보니 별로 긴장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 앞으로 과학커뮤니케이터로서의 계획이 있다면

- 사실 다방면의 플랫폼에서 활약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되고 싶어요. 강연이나 팟캐스트 같은 플랫폼과 함께, 버스킹이나 과학 연극과 같이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사진 설명]



▲ 지스트대학 김병진 학생